WEBVTT

00:00:31.843 --> 00:00:32.806

안녕하십니까?

00:00:32.906 --> 00:00:34.998

인문학 살롱의 유혜선입니다.

00:00:35.098 --> 00:00:39.524

이번 시간에는 도덕적 개인과
비도덕적 사회라는

00:00:39.624 --> 00:00:42.339

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
한번 해 볼까 하는데요.

00:00:42.439 --> 00:00:46.986

오늘날 현대인들은 참
똑똑하고 정보가 많잖아요.

00:00:47.086 --> 00:00:50.173

그러다 보니까 학습도 많이
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

00:00:50.273 --> 00:00:53.486

교육도 많이 받고 이래서
굉장히 현명합니다.

00:00:53.586 --> 00:00:55.718

그래서 굉장히 윤리적이고
도덕적이예요.

00:00:55.818 --> 00:00:58.945

그게 자신의 인격이고 품격이라고
생각하기 때문이죠.

00:00:59.045 --> 00:01:05.899

한 개인은 그렇지만 그 개인이
속해 있는 사회나 조직은

00:01:05.999 --> 00:01:08.627

이해관계가 일단 얽히기 시작하면

00:01:08.727 --> 00:01:11.964

철저하게 비도덕적으로밖에
갈 수가 없다는 거죠.

00:01:12.073 --> 00:01:16.074

더군다나 스티브 잡스 이후에
우리의 삶이 어때요?

00:01:16.174 --> 00:01:18.412

어떤 기계로 인해서
굉장히 편리해집니다.

00:01:18.587 --> 00:01:24.092

그래서 마이홈 시대에서 마이룸
시대에서 이제는 어때요

00:01:24.272 --> 00:01:27.277

마이폰 시대로
폰 하나만 들고 있으면

00:01:27.457 --> 00:01:31.244
세상 어디 사막 한가운데
갖다 놔도 절대 외롭지 않을 거야.

00:01:31.416 --> 00:01:34.896
그 정도로 자기 고립에
빠져서 삽니다.

00:01:34.996 --> 00:01:38.462
반면에 이 사회는
철저하게 시스템적으로

00:01:38.562 --> 00:01:40.641
첨단의 세계를 가고 있기 때문에

00:01:40.741 --> 00:01:44.864
이 사회는 더욱더 첨단에
의해서 조직화되고

00:01:44.964 --> 00:01:49.260
이해타산에 대해서
한 개인의 삶을 완벽하게

00:01:49.427 --> 00:01:52.027
차단하고 고립시켜 버리는 거죠.

00:01:52.127 --> 00:01:55.577
그렇다면 이때까지
우리가 생각해 왔던

00:01:55.677 --> 00:01:58.279
Justice, 정의가
그러면 무엇일까요?

00:01:58.379 --> 00:02:00.848
그러면 리더십이라는 게
어떤 걸까요?

00:02:01.010 --> 00:02:03.079
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

00:02:03.179 --> 00:02:06.543
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지
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

00:02:06.643 --> 00:02:10.536
그래서 저는 리더십이라든지
정의라든지

00:02:10.636 --> 00:02:16.194
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
제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림은

00:02:16.294 --> 00:02:20.935
몇 년 전에 우리의 가슴을
아프게 했던 아! 세월호

00:02:21.110 --> 00:02:24.917

그리고 이 세월호의
현장과 너무나 유사한

00:02:25.017 --> 00:02:31.119

100년 전의 사건이긴
하지만 테오도르 제리코의

00:02:31.219 --> 00:02:34.996

메두사의 뱀목이라는
그림이 있습니다.

00:02:35.096 --> 00:02:39.982

이 그림과 세월호가 너무나 유사한
장면을 찾아볼 수 있는데

00:02:40.082 --> 00:02:41.260

정도가 있던가요?

00:02:41.395 --> 00:02:42.935

리더십이 살아 있던가요?

00:02:43.035 --> 00:02:48.771

관리와 감독 그다음에 통제
이런 것들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

00:02:48.871 --> 00:02:52.436

정말 가진 자만이
누리고자 하는 특혜

00:02:52.536 --> 00:02:55.666

이런 것들을 이 그림을 통해서
날날이 고발하고 있는데요.

00:02:55.766 --> 00:02:59.745

이 테오도르 제리코의
메두사의 뱀목을 보면

00:02:59.845 --> 00:03:03.870

프랑스의 부르봉 왕족,
루이 18세.

00:03:03.970 --> 00:03:08.123

그때는 왕족이 퇴락할 대로
퇴락한 그 시대에

00:03:08.223 --> 00:03:13.395

그 당시 유럽 열강들은 아프리카를
향하는 것이 꿈이었죠.

00:03:13.495 --> 00:03:16.959

거기에 광물과 다이아몬드가
엄청나게 있다는 게

00:03:17.059 --> 00:03:21.385

소문이 나서 해상 무역을 통해서
아프리카로 가는 것이

00:03:21.534 --> 00:03:25.221

그들의 힘의 과시였는데요.

00:03:25.321 --> 00:03:32.216

그래서 프랑스에도 세네갈로
향하는 메두사호가 있는데

00:03:32.316 --> 00:03:36.463

이 메두사호의 함장 자리를
쇼마레라는 함장인데

00:03:36.590 --> 00:03:39.487

이 사람은 해군 출신이 아니에요.

00:03:39.587 --> 00:03:41.458

퇴역한 육군 장성이예요.

00:03:41.558 --> 00:03:44.596

그런데 돈을 주고
그 함장 자리를 삽니다.

00:03:44.696 --> 00:03:48.219

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끌고 가겠다.

00:03:48.391 --> 00:03:52.838

함장은 배를 나한테 달라 이렇게 해서
그 배의 함장 자리를 사서 어때요?

00:03:52.938 --> 00:03:55.489

돈을 주고 샀으니 본전을
뽑아야 하잖아요.

00:03:55.589 --> 00:03:59.485

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
아프리카에 가면

00:03:59.585 --> 00:04:04.218

엄청나게 많은 로또다,
같이 가자, 돈 벌자

00:04:04.377 --> 00:04:09.638

이렇게 해서 그 자리를
파는데 정원이 240명인데

00:04:09.781 --> 00:04:12.079

490명까지 태운 거죠.

00:04:12.179 --> 00:04:16.045

그러니까 정원의 2배 이상을
태우고 아프리카를 향해하다가

00:04:16.145 --> 00:04:17.768

풍랑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

00:04:17.868 --> 00:04:19.391

좌초하기가 쉽죠.

00:04:19.491 --> 00:04:24.077

그런데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
이 쇼마레라는 선장은

00:04:24.230 --> 00:04:27.689

한 번도 바다 위에서 위기관리를
해 본 적이 없어서

00:04:27.789 --> 00:04:31.178

자신들이, 가진 사람들이
죽을지도 모른다는

00:04:31.278 --> 00:04:35.322

이 불안함을 어찌할 수
없어서 그러니까 구명정에는

00:04:35.480 --> 00:04:37.753

돈을 많이 낸 사람들이 탕쨌죠.

00:04:37.853 --> 00:04:42.255

그런데 거기 가면 노예도 필요하고
일할 사람도 필요하기 때문에

00:04:42.355 --> 00:04:46.297

그런 사람들은 그냥 뗏목에
엮어서 너희는 뗏목에 타라,

00:04:46.397 --> 00:04:48.731

우리가 끌고 가겠다
이렇게 약속을 하고

00:04:48.831 --> 00:04:52.616

뗏목으로 끌고 가다가
그냥 끊어 버리는 거죠.

00:04:52.716 --> 00:04:56.308

왜냐하면 이 사람들 다 끌고
가다가는 자기들이 다 죽을 판이니까

00:04:56.408 --> 00:05:02.577

가진 자들은 따라오지 못하게끔
밧줄을 끊어 버림으로써

00:05:02.677 --> 00:05:06.462

이 사람들은 정말 바다 위에서
아비규환으로 삶을 살게 되는 거죠.

00:05:06.570 --> 00:05:09.819

그래서 거의 다 죽고
해안에 도착했을 때는

00:05:09.919 --> 00:05:13.902

열몇 명이 살았는데 그 사람들도
온전한 사람들은 아니죠.

00:05:14.002 --> 00:05:17.242

그 사람 중의 두 사람이
조금 정신을 차려서

00:05:17.342 --> 00:05:21.040

이런 시대적인 부패, 고발상을
그냥 넘길 수는 없다

00:05:21.193 --> 00:05:26.481

이래서 항목, 항목 글로써
적은 것을 테오도르 제리코라는

00:05:26.656 --> 00:05:30.372

화가가가 이거를 다 받아서

증언을 하듯이

00:05:30.496 --> 00:05:36.514

시체안치소도 찾아다니고
그 당시에 유사한 사례들을 들어서

00:05:36.639 --> 00:05:39.377

하나하나씩 다 붙여서 그런 그림이

00:05:39.477 --> 00:05:42.871

메두사의 뱀목이라고
할 수 있습니다.

00:05:42.971 --> 00:05:48.101

이 그림을 보면 지금
이 시대의 선장이나

00:05:48.201 --> 00:05:52.767

그 시대의 선장이나 리더십이나
정부가 정말 살아 있는가?

00:05:52.952 --> 00:05:54.005

management is die,

00:05:54.150 --> 00:05:57.608

경영학도 죽고 관리라는 건
없다는 것을

00:05:57.766 --> 00:06:00.365

이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지
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

00:06:00.546 --> 00:06:07.420

마찬가지로 프랜시스 스페이트호라는
배가 캐나다 지역

00:06:07.596 --> 00:06:12.600

태평양 알바다에서 침몰했는데
13명의 선원이 살았어요.

00:06:12.700 --> 00:06:16.226

그런데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
다 죽게 생겼으니까

00:06:16.326 --> 00:06:18.897

우리가 다 죽느니
한 사람이 희생을 하자.

00:06:19.056 --> 00:06:24.837

그래서 희생을 해서 죽고 다른 사람을
살려서 가는 게 낫지 않느냐?

00:06:24.990 --> 00:06:26.098

그러면 누가 죽을래?

00:06:26.230 --> 00:06:27.830

그래서 뽑기를 했다고 합니다.

00:06:27.930 --> 00:06:33.117

그런데 선장과 기득권을
가진 몇몇 사람들이

00:06:33.217 --> 00:06:34.706

우리가 죽어서 되겠느냐.

00:06:34.806 --> 00:06:38.666

내가 뺨힐지도 모르는 그 두려움을
나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.

00:06:38.766 --> 00:06:40.425

그러면 누구를 죽일래?

00:06:40.525 --> 00:06:45.292

가장 힘이 없는 14살밖에
되지 않은 오브라이언이라는

00:06:45.442 --> 00:06:49.264

수습사원이 그 뺨기를 뺨을 수
있도록 조작을 한 거죠.

00:06:49.364 --> 00:06:54.005

그래서 그 어린 소년은 죽어서
이 사람들을 먹여 살렸는데

00:06:54.105 --> 00:06:59.509

그 12명 중의 한 사람이
본국으로 돌아와서

00:06:59.651 --> 00:07:02.461

이런 현상을 고발하면서 인권에 대한

00:07:02.597 --> 00:07:08.149

재판이 오랫동안 사회 이슈가
됐던 이런 사례라고 합니다.

00:07:08.249 --> 00:07:12.892

그래서 이런 거를 대변해서
라인홀드 니버, 미국의 윤리학자죠.

00:07:13.066 --> 00:07:17.762

라인홀드 니버의 도덕적
개인과 비도덕적 사회에서

00:07:17.862 --> 00:07:21.400

앞으로 사회가 선진화되고
첨단화될수록

00:07:21.576 --> 00:07:27.657

스티브 잡스 이후에 시스템이
더 편리해질 정도로 첨단화될수록

00:07:27.757 --> 00:07:33.230

우리 사회는 철저하게 비도덕적인
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는

00:07:33.392 --> 00:07:34.507

이야기를 했습니다.

00:07:34.607 --> 00:07:37.297

그런 이야기를 마치 대변이라도 하듯

00:07:37.397 --> 00:07:41.214

이런 일본의 플래티나
데이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.

00:07:41.359 --> 00:07:44.167

여러분, 이 영화를
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.

00:07:44.267 --> 00:07:47.237

이 영화는 여러 가지
재밌는 스토리가 많아요.

00:07:47.337 --> 00:07:52.589

SF의 과학 영화고 이렇게 해서
흥밋거리가 많지만

00:07:52.761 --> 00:07:59.318

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플래티나
데이터의 핵심은 이런 거죠.

00:07:59.418 --> 00:08:03.789

일본 전 국민의
DNA를 다 추출해서

00:08:03.889 --> 00:08:06.518

어느 한 데이터에
보관하고 있는 거죠.

00:08:06.618 --> 00:08:09.925

그랬을 때 어떤 한 사람이
범죄를 저질렀어요.

00:08:10.025 --> 00:08:11.884

범죄를 저지르면 흔적이
있지 않겠어요?

00:08:12.015 --> 00:08:17.020

머리카락이든 땀이든 피든
이런 것을 추출하면

00:08:17.120 --> 00:08:18.153

DNA가 나온다 이거죠.

00:08:18.291 --> 00:08:21.326

그러면 그 DNA를
추출해서 온 국민이 저장된

00:08:21.426 --> 00:08:25.145

이 데이터에 돌리면 find,
일치가 누군가 떨어진다는 거죠.

00:08:25.275 --> 00:08:26.986

그러면 그 사람이 범인이라는 거죠.

00:08:27.086 --> 00:08:33.408

그랬을 경우에 범죄 검거율
100%를 자랑한다고

00:08:33.556 --> 00:08:37.785

천재 과학자가 완벽한 DNA에
의한 수사 시스템에 대해서

00:08:37.885 --> 00:08:41.226

플래티나 데이터라는
시스템을 개발한 거죠.

00:08:41.326 --> 00:08:42.900

첨단의 시스템이죠.

00:08:43.000 --> 00:08:48.556

그래서 이 과학자는 일본의
후생성 장관까지 오를 정도로

00:08:48.656 --> 00:08:52.450

인정을 받았는데 문제는 거기에
오류가 있다는 거죠.

00:08:52.550 --> 00:08:58.703

아사마라는 일반 경찰이
분명히 장관의 아들이

00:08:58.803 --> 00:09:03.478

부녀자를 폭행하고 살인하는
확실한 물증은 없지만

00:09:03.658 --> 00:09:10.671

심층적인 확증이 있어서 이 사람의
DNA를 추출해서 돌렸는데

00:09:10.771 --> 00:09:12.323

나오지 않는 거죠.

00:09:12.889 --> 00:09:17.255

전 국민의 DNA가 들어 있으면
이 사람의 데이터가 나와야 하는데

00:09:17.355 --> 00:09:19.351

이 사람의 데이터가
나오지 않는 거죠.

00:09:19.451 --> 00:09:23.910

그래서 궁금해서 아사마
형사의 추적에 의해서

00:09:24.010 --> 00:09:27.751

플래티나 데이터의
이야기가 반전을 겪으면서

00:09:27.851 --> 00:09:30.996

흥미진진하게 끌고 가는데
결국은 이런 거죠.

00:09:31.096 --> 00:09:35.987

일본 1%의 가진 자들은
플래티나 데이터 시스템에서

00:09:36.087 --> 00:09:39.505

이 사람들의 DNA는
별도로 관리한다는 거죠.

00:09:39.605 --> 00:09:44.167

무슨 말이나면 이 1%에 해당하는
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거나

00:09:44.310 --> 00:09:47.362

사람을 죽여도 일반인들과
똑같은 처벌에서

00:09:47.526 --> 00:09:49.154

제외 받을 수 있다는 거죠.

00:09:49.254 --> 00:09:54.857

이게 얼마나 엄청난 가진 자들의
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.

00:09:54.957 --> 00:10:03.647

그래서 이렇게 사회가 첨단화되고
기계가 유비쿼터스라든지

00:10:03.747 --> 00:10:06.512

사이보그라든지 인공지능에 의해서

00:10:06.612 --> 00:10:10.130

우리 삶이 굉장히
첨단화되고 풍부해져서

00:10:10.199 --> 00:10:14.180

우리 인간이 풍요로운 삶을
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

00:10:14.280 --> 00:10:18.235

개인의 삶은 그렇지만
그런 시스템에 의해서

00:10:18.335 --> 00:10:22.575

사회는 더욱더 치명적으로
비도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

00:10:22.675 --> 00:10:26.074

너무나 끔찍하게 비도덕적으로
갈 수밖에 없는

00:10:26.174 --> 00:10:31.133

이런 사회적인 현실 속에 우리가
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.

00:10:31.233 --> 00:10:33.647

그래서 참 무서운 시대입니다.

00:10:33.761 --> 00:10:38.455

그래서 이런 비도덕적 사회에서
도덕적 개인이 살아가는

00:10:38.555 --> 00:10:42.429

프롤레타리아 계급의
윤리적인 태도를 보면

00:10:42.529 --> 00:10:47.510

다음과 같이 5가지의 형태로
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.

00:10:47.610 --> 00:10:51.709

이런 프롤레타리아 계급은
교육받은 자, 가진 자죠.

00:10:51.809 --> 00:10:54.969

이런 윤리적인 태도를
보면 냉소주의입니다.

00:10:55.069 --> 00:10:59.703

도덕적인 척하지만 결국은 냉소주의로
흐를 수밖에 없는 거죠.

00:10:59.839 --> 00:11:03.600

그다음에 개인의 평등을 이야기하지만

00:11:03.700 --> 00:11:07.225

결국 그 평등은 이상주의로
갈 수밖에 없는 거죠.

00:11:07.325 --> 00:11:12.288

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
양극화는 어쩔 수 없이

00:11:12.462 --> 00:11:16.455

치명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
갈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

00:11:16.555 --> 00:11:19.367

그런 평등적 이상주의에
빠질 수밖에 없고

00:11:19.467 --> 00:11:22.882

그다음에 이런 프롤레타리아
계급, 도덕적 개인의

00:11:23.046 --> 00:11:25.909

프롤레타리아 계급은 영웅주의로 가되

00:11:26.052 --> 00:11:28.932

반항적 영웅주의로
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.

00:11:29.032 --> 00:11:31.928

그래서 이런 윤리적인 태도의
특징을 보이고 있고

00:11:32.028 --> 00:11:34.269

그다음에
Anti-nationalism

00:11:34.369 --> 00:11:41.702

반민족주의와 더불어서 이제는 글로벌화
시대의 국제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.

00:11:41.802 --> 00:11:45.309

이런 태도를 우리는
비도덕적인 사회에서

00:11:45.409 --> 00:11:48.933

도덕적인 개인이 나타낼 수 있는
5가지 특징이 아닐까 하고

00:11:49.033 --> 00:11:51.018

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 봅니다.

00:11:59.307 --> 00:12:05.029

그러면 도덕적 개인과
비도덕적 사회에서의 특징을

00:12:05.129 --> 00:12:08.106

다음과 같이 4가지로
한번 요약해 해 본다면

00:12:08.206 --> 00:12:12.387

앞으로 개인은 더욱더 도덕적인
삶으로 살아갈 거라는 거죠.

00:12:12.500 --> 00:12:16.800

그렇지만 우리 사회는
첨단의 발전에 의해서

00:12:16.958 --> 00:12:20.262

더욱더 비도덕적인 시스템으로
갈 수밖에 없다.

00:12:20.376 --> 00:12:22.180

서로 모르는 사이에
이렇게 비도덕적으로

00:12:22.237 --> 00:12:24.554

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.

00:12:24.634 --> 00:12:27.523

그렇다면 이 시대의 정의가 뭔가?

00:12:27.623 --> 00:12:29.085

justice, 정의가 뭔가?

00:12:29.185 --> 00:12:32.349

그다음에 리더십이라는
개념이 과연 필요한가?

00:12:32.449 --> 00:12:36.143

누가 누구를 리드하고
누가 누구를 관리하고 감독하고

00:12:36.243 --> 00:12:39.014

또 리더십을 발휘한다는
그 자체가 이제는

00:12:39.190 --> 00:12:43.368

말이 성립 안 되기 때문에
인간관계, 사회관계에서

00:12:43.393 --> 00:12:47.759

새로운 패러다임의 개념 설정이
필요한 때가 되었다고

00:12:47.900 --> 00:12:49.815

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.

00:12:49.915 --> 00:12:54.113

세 번째는 그렇다면
우리 앞으로의 삶이

00:12:54.213 --> 00:12:57.182
인간과 기계가 공존하는 삶이다.

00:12:57.282 --> 00:12:59.687
우리가 이때까지 도덕적
개인이라는 것은

00:12:59.787 --> 00:13:03.527
하나의 생물체로서의
한 인간을 규정했다면

00:13:03.627 --> 00:13:09.968
이제는 우리의 삶이 인간과 기계가
믹스되는 인공지능이라든지

00:13:10.137 --> 00:13:15.522
사이보그라든지 가상세계.

00:13:15.622 --> 00:13:17.458
인공지능이라는 게 뭐예요?

00:13:17.558 --> 00:13:22.699
우리 인간의 첨단인 기계
시스템에 의한 조작이잖아요.

00:13:22.799 --> 00:13:26.529
이런 게 공유될 때
우리 현실이라는 것이

00:13:27.818 --> 00:13:29.878
어떻게 정리가 다시
가능한가 이거죠.

00:13:29.978 --> 00:13:33.290
현실과 가상이 통합되고
이렇게 혼용된다면

00:13:33.390 --> 00:13:37.399
우리 한 인간 개인의 삶을
도덕적으로 규명한다는 것은

00:13:37.547 --> 00:13:39.721
굉장히 불가능한 일이다.

00:13:39.821 --> 00:13:44.002
우리 한 인간의 도덕적 개인이라
그러면 도덕적이라는 것은

00:13:44.102 --> 00:13:48.332
한 인간으로서의 삶을
규정하지만 여기에 기계라든지

00:13:48.432 --> 00:13:52.592
사이보그가 붙으면 인간의 영역을
훨씬 뛰어넘는 가상의 세계에서

00:13:52.692 --> 00:13:56.981
도덕을 어떻게 규명할 수
있을 건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.

00:13:57.081 --> 00:14:00.575

그다음에 네 번째, 그러면
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?

00:14:00.740 --> 00:14:05.137
비도덕적 사회에 도덕적 개인은
오히려 자신의 손길만이

00:14:05.237 --> 00:14:06.993
자신의 삶을 달랠 수밖에 없다.

00:14:07.093 --> 00:14:10.639
어느 것이 옳고 그르고
선악이고 좋고 나쁘고

00:14:10.739 --> 00:14:12.738
이런 거를 규명하기가 참 힘들다.

00:14:12.838 --> 00:14:17.865
자신의 손길만이 자신의 삶을
규명하고 달랠 수 있기 때문에

00:14:17.965 --> 00:14:21.429
이럴수록 인문학적 삶에 대한
성찰, 통찰이

00:14:21.584 --> 00:14:24.335
더욱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
하는 이야기입니다.

00:14:24.859 --> 00:14:25.620
감사합니다.